

담양군, '88올림픽 복권' 병풍·기장 기증 받아

‘익명 기부천사’ 임흥균씨 전달 지역 ‘등불장학회’ 설립 기여도 군 “행사 전시로 가치 공유 계획”



17년 전부터 익명 기부를 이어오며 담양군에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자녀를 위한 ‘등불장학회’ 설립의 계기가 된 임흥균(85·오른쪽)씨가 최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발행된 복권을 모아 만든 ‘10폭 병풍’과 ‘기장’을 담양군에 기증했다. <담양군 제공>

17년 전부터 익명 기부를 이어오며 담양군에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자녀를 위한 ‘등불장학회’의 설립 계기가 된 임흥균(85)씨가 이번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발행된 복권을 모아 만든 ‘10폭 병풍’과 ‘기장’을 군에 기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림픽 복권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다.

임씨는 88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매주 복권을 구매했고, 전체 발행분(1-209회)을 모두 모아 10폭 병풍으로 제작해 간직하다가 이번에 담양군에 기증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들에게 수여된 ‘올림픽 기장’도 함께 기부했다.

임씨는 담양군에 ‘등불장학회’가 설립되는 계기를 만든 ‘이름 없는 천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009년 토마토 상자에 2억원을 담아 담양군수에게 보낸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박카스 상자에 200만원을, 다음 해에는 양주 상자에 1억원을 담아 기부했다. 신분을 속이고 기부를 이어온 임씨는 이후에

담양군 관계자는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증자의 뜻에 따라 자료를 군 기록관에 영구 보존하고, 향후 각종 행사에 전시해 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원 이상 기부를 이어오다가 자녀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분이 밝혀졌다.

임씨는 고희연을 위해 자녀들이 준비한 기금과 폐지·고물을 수집해 판 수익금 등을 모아 기부를 계속했으며, 익명 기부 외에도 아이티 대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 등 지난 9년간 크고 작은 기부와 독려 활동으로 수천원을 기부한 사실도 알려져 주목받았다.

전직 소방관인 임씨는 익명 기부를 이어가는 동안 현금과 함께 ‘골목길에 등불이 되고파’, ‘등불에 심지가 너무 짝아’라는 내용의 손 편지를 남겼다. 담양군은 그의 편지를 바탕으로 기부금을 의용소방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등불장학금’으로 운영해 매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증자의 뜻에 따라 자료를 군 기록관에 영구 보존하고, 향후 각종 행사에 전시해 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해양 송지파출소·생활안전협 환경 캠페인

해양경찰서 송지파출소와 생활안전협의회는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 24일 송호해수욕장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해안가로 밀려온 각종 부유물과 생활쓰레기 수거에 헌신을 다했다.

김남열 송지 생활안전협의회장은 “생활 안전의 시작은 쾌적한 주변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살기 좋은 송지면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



광주소방, 봄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5일 북구 매곡동 중외공원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봄철 화재에 방대책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봄철 기후와 공사장 내 화재 위험요인 증가에 대비해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서는 화재 취약 공정을 중심으로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상태, 위험물 취급·관리 실태,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특히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 책임자와 면담을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작업량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공사장 관계자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전남농기원, 온열질환 예방요원 발대식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을 시작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5일 “온열질환 예방요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지역 농업인 학습단체 소속 선농업인들이 예방요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고령 농업인과 장시간 야외 작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농작업 전·후 수분 섭취와 휴식 지도, 작업 환경 위험 점검,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3월부터 활동이 증가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SFTS)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SFTS는 치명률이 높은 질병으로 농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예방요원을 통해 긴 소매·긴 바지 착용, 농작업 전 진드기 기피제 사용, 작업 후 즉시 샤워 및 세탁 등 3대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일행, 목포상의 방문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일행이 목포를 찾아 지역 경제계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확대의 물꼬를 텃다.

25일 목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남 토우픽 이슬람 사티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가 목포상의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전남 서남권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류 차원에서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무역 및 투자 협력 ▲기업 간

교류 확대 ▲산업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현택 목포상의의 회장은 “지난 남아공 대사 방문에 이어 이번 방글라데시 대사 일행의 방문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넓히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국가와의 교류를 지속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주·전남대학, 조선대서 총장협의회 개최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5일 조선대학교 본관 청춘홀에서 2026년 제1차 총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주희 동신대 총장을 비롯해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 조준범 남부대 총장, 윤빈호 목포가톨릭대 총장, 최미순 세한대 총장, 최수태 송원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이근배 전남대 총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 서유미 초당대 총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황민호 호남신학대 총장, 정용호 광주과기원(GIST) 대외부총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대학 간 협력 확대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박선욱기자

미주호남향우회,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합니다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25일 “미주호남향우회 총연합회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주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뉴욕, 메릴랜드, 워싱턴 DC, 애틀랜타 등 미국 24개 지역 호남향우회를 아우르는 재외동포 단체로 경제·문화·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미주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다짐 캠페인”을 펼쳤으며 박람회 홍보 확산을 위한 입장권 구매약정도 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미주 지역 향우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홍보를 본격화하고 국제교류 확대, 농수산물 수출 증진 등 실질적 경제 협력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강진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뉴서울CC 협약

강진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는 지난 24일 뉴서울컨트리클럽(CC)과 회원 교류 및 골프장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골프장의 높은 접근성과 전남 골프장의 자연 친화적인 코스 환경 등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양 측은 회원 상호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서비스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들 통해 수도권 골프인들의 전남 유입을 확대하고,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색다른 라운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정영록기자

정서경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 취임

제14대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에 정서경(54·사진) 꽃무지어린이집 원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3일 나주 빛가람동 급진농협 빛가람점 5층 대강당에서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최명수·이재태 전남도의원,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단체장과 어린이집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서경 신임 회장은 “교육과 보육의 균형,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교직원들과 함께 나주 보육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정환기자



동강대, 'HTHT 토익' 프로그램 수료식

동강대가 인공지능(AI) 기반 수준별 맞춤에듀테크를 활용해 재학생들의 어학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25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AI국제교류처는 교수연구동 1층 글로벌존에서 '2025학년도 동계방학 HTHT AI 기반 토익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참여 학생 20명 중 85%인 1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HTHT(High Touch High Tech·하이터치 하이테크)'는 AI를 통해 개인별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한다. /박선욱기자

결혼

▲이중주(전남매일 주필)·이지영씨 아들 준영군, 양상원·김점숙씨 딸 현경양=25일(일) 오후 3시 토브헤드(서울 강남구 논현동 72-8).

부음

▲김순덕씨 별세, 백희순·영복·예자·심자·인자·경자씨 모친상=발인 27일(금)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호(010-3608-4963).